27돌 부산교직원불자聯 "佛法서 참된 교사의 길 찾겠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서 창립 27주년 기념법회 봉행

이도경 부산지사장 yongjang88@naver.com

교권 붕괴, 교권 추락이라는 말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 교사들의 하루하루가 엄청난 도전으로 받아들여질만큼 힘들어졌다. 이런 때에 부산 지역 초등, 중등, 고등 교사 불자들의 모임인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회장 손은주)가 창립 27주년을 맞아 부처님 가르침으로 내면의 힘을 충전하고 참된 교사의 길을 찾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6월 22일 한마음선원부산지원 마음강당에서 열린 창립 27주년 기념 대법회에는 부산 지역 교사들은 물론 서울, 제주 등에서도 27주년을 축하해 주기 위해 참여했다. 손은주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장, 김경희 전국교직원불자연합회장,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박종실 사무총장, 박현희, 이학우 전 대 회장, 박상규 사립학교장회장을 비롯하여 각 지회 회장 및 각 학교 교장, 교감, 회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식전행사로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선법합창단의 음성공양과 혜벽 스님의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명상법 강의가 있었다. 혜벽 스님은 '바다에서 나온 물방울'이란 주제로 바다와 물방울이 둘이 아닌 이치를 설명했다. 중, 고등학교에 마음공부 강의를 진행중인 스님은 우리의 참된 마음과 작용을 바다와 물방울로 비유하니 타 종교 학생도 거부감없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며 학생들의 후기를 공유했다. 혜벽 스님은 "이 명상을 통해 근본자리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면 교사도 학생도 부딪히는 갈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널리 활용하길 희망 했다.

이어진 본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삼귀의 △보현행원 △반야심경 △내빈소개 △경과보고 △회장인사 △감사패증정 △축사 △축하공연 △영상법문 및 법어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손은주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장은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는 지난 27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불법을 널리 알리고 교직원들이 불교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앞으로도 젊은 교사와 교직원들에게도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가 6월 22일 한마음선원부산지원 마음강당에서 창립 27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다.

회원 150여 명 참석해
전 회장단 감사패 전달
지원장 혜도 스님 법문
혜벽 스님 명상 실습도

김경희 전국교직원불자연합회장은 "저희 대법회를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에서 개최하도록 법석을 흔쾌히 허락해주신 혜도 지원장스님께 감사드리며 식전행사로 합창단의 선법가를 들으면서 마음의 치유가 말끔히 된 것 같다"며 "함께 동참한 모든 도반님들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자리가 본래 크고 맑고 충만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축사를 전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부처님 자비심과 지혜의 공덕을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으로 어떻게 전환할까 하는 게 평소 저의 고민이었는데 오늘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에서 그 방법을 배운 것 같다. 오늘 법회를 통해 우리 스스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창립 27주년을 축하했다.

'한마음의 위력'이라는 대행 선사의 생전 영상법문과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의 법문이 이어졌다.

혜도 스님은 "학생들을 제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분들이 바뀌어야하며 학생 한명 한명이 곧 내 몸속 세포 하나 하나라고 여기셔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모든 것을 불성자리인 한마음자리에 놓아야 한다. 그래야 내 몸의 세포의 의식들이 밝아지고 그럼으로써 마음이 저절로 밝아지게 된다. 또한 여러분들의 그 밝음으로 인해 학생들은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자기 인생을 잘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정진을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아이들과의 갈등, 여러 문제들로 지쳐 있었는데 오늘 법회에서 우리 마음에 그 모든 걸 들이고 내며 해결해 가는 근본자리가 있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부처님 가르침 안에 답이 있는데 그 답을 따라 실천하는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는 지난 10년간 회장단을 역임한 김경희 전 회장과 김화선 전 사무총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단체를 위해 헌신한 공로에 감사를 전했다.

부산종교인평화회의 호국영령 합동위령제

부산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정산 스님)가 6월 21일 유엔 기념공원 내 위령탑 앞에서 '2024 유엔 전몰장병 및 호국영령을 위한 합동위령제'를 봉행했다.〈사진〉

부산종교인평화회의는 불교, 원불교, 유교 등 부산지역 6개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모임으로 매년 호국의 달을 맞아 합동위령제를 봉행하고 있다.

합동위령제는 △헌화 및 참배 △개회선언 △국민의례 △UN군 전몰장병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내빈소개 △추도사 △종단별 추도식 △추모의 노래 △공지사항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대표회장 정산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위령제를 계기로 꽃다운 나이에 죽음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끝내 산화한 UN군 전몰장병들이 각자의 믿음과 원하는 세상에서 영원한 평화를 가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대불련 발전 통해 캠퍼스 포교 진흥"

대불련 총동문회, 6월 22~23일 제20회 전국동문대회 개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회장 최승태)가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와 홍법사에서 '제20회 전국동문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국동문대회는 '대불련61년 진리의 바다로'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대불련총동문회 부산지부 주관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 교무국장 석산 스님, 대불련 부산지부 지도법사 안도 스님, 화엄승가회 회장 자인 스님,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범혜 스님을 비롯해 주현우 대불련 중앙회장 및 대불련 지부장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가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와 홍법사에서 '제20회 전국동문대회'를 개최했다.

자랑스런 대불련인상은 고 박건주 동문, 박광민 동문, 유선재 동문이 수상했으며, 공로상은 이임범 씨와 이숙희 씨가 받았다.

최승태 대불련 총동문회장은 "지난 60여년 동안 대불련은 캠퍼스 포교 현장을 함께해 왔다"며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 대학생 불교 현장이 반갑고 더욱 발전적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선구자로서 큰 역할을 해왔다"며 "한마음이 되고 환희심으로 원만 회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송정 대운사, 현대인 얼굴 담긴 나한 점안

6월 23일, 경내 2층 법당 220여 도자기 나한 불사

부산 송정 대운사(주지 주석 스님)가 6월 23일 경내 2층 법당에서 '대운사 나한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대운사에 봉안 된 나한은 현대인의 얼굴을 모티브로 모습을 조형해 눈길을 끌었으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전하는 일상 속 깨달음을 메시지로 담아 새로움을 더했다.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 스님을 증명으로 진행된 이번 나한 점안식은 국가무형문화재 127호 아랫녘 수륙재보존회 이사장 석봉 스님의 집전으로 거행됐다.

범어사 방장 정여 스님은 "나한을 모신 공덕은 그 어떤 공덕보다 수승하다"며 "문화를 통해 불교를 현대적으로 발전, 포교하는 주지스님의 원력에 함께한 모든 신도님들이 발전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산 송정 대운사가 6월 23일 경내 2층 법당에서 '대운사 나한 점안법회' 를 봉행했다.

주지 주석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불사가 원만 성취하기 까지 동참하고 격려해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점안할 수 있었던 거 같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 수 있고, 여러분들이 더 행복하게 수행 정진할 수 있는 대운사 도량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BTN 부산합창단 정기연주회 성료

BTN불교TV 부산합창단(단장 박다언)이 6월 23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정기연주회 '心쉼한 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마음의 쉼을 주제로 열린 이번 음악회에는 사운드 테라피를 선사하는 '이너피스 사운드'의 공연으로 시작해 'BTN부산합창단'과 '별빛 중창단', '음악대륙 가이아'가 무대를 장식했다.

합창 공연에는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을 비롯해 김수현 BTN불교TV 부산지사장 등 사부대중 700여 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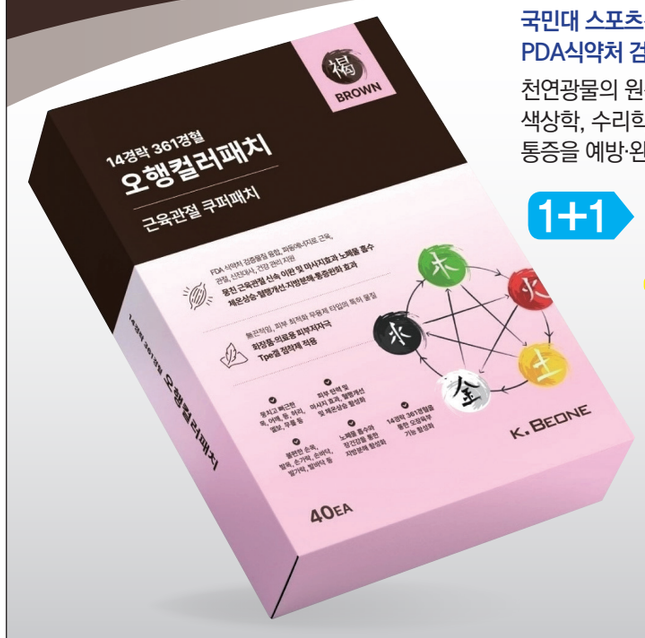
제7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

수계는 삼보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참된 나를 찾아가는 행복한 삶의 길잡이입니다.
삼귀의계오계 수계를 통해 불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길 서원합니다.
좋은 인연에 동참 바랍니다.

■ 일 시 : 2024년 8월 10일 토요일(음7.7) 오후 3시 ~ 5시
■ 장 소 :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컨퍼런스홀
■ 三師 七證師
전계대화상 선응지현 대율사 (조계총림 송광사 율주, 관음사 회주)
갈마아사리 심산법미 대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3대회장, 홍법사 주지)
교수아사리 원허효명 대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4~5대 회장, 혜원정사 회주)
존증아사리 목종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대광명사 주지)
존증아사리 하림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수석부회장, 미타선원 원장)
존증아사리 도일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상임위원, 관음사 선덕)
존증아사리 원순 율사 (재단법인 동명불원 원장)
존증아사리 만초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존증아사리 지일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내원정사 주지)
존증아사리 담화림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무진선원 주지)
■ 수계동참금 : 3만원
■ 복 장 : 상의(흰색), 하의(편한바지)
■ 문 의 : 사무국 051)501-7554
■ 주최 ·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건강법'
오행컬러패치
특판 할인가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 전공한 심영세원 교수가 개발한 오행컬러패치!!
PDA식약처 검증된 피부 친화 Tpe겔 접착제 사용!!
천연광물의 원적외선 파동에너지 기술과 한의학 14경락 361경혈 기반 색상학, 수리학, 명리학을 접목하여 경직된 세포를 마사지하고 통증을 예방·완화하는 기술을 패치(파스) 한 장에 담았습니다.

1+1 소비자가 ~~₩99,000~~ 60%할인
₩39,600 총 80매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보세요
사용법이 자세히 나옵니다
허리통증
무릎통증
어깨/목통증
손목/발목통증

NAVER 마하몰

자면서 저절로 건강해지는 패치(파스) "취침 전 붙이고, 기상 후 떼세요"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